

'동선 거짓말'로 집단감염 초래 확진자 집유

광주 금양오피스텔 첫 확진자,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다른 지역서 양성 판정받은 환자 만나고 온 사실 숨겨

자신의 동선을 숨기는 '허위 진술'로 방역 체계를 흔들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초래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방문판매업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 금양오피스텔 첫 확진자로, 광주 지역 37번째 감염 사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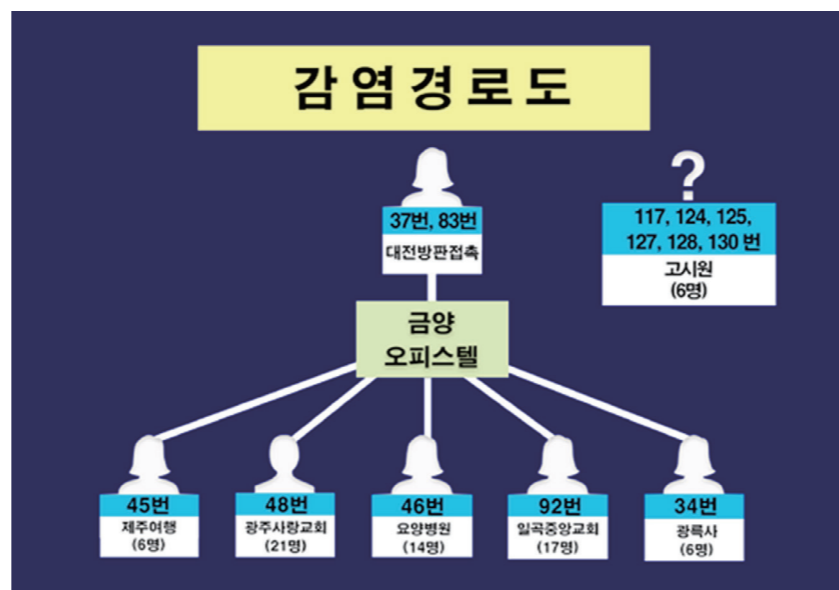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세종시와 충북 청주 방문판매업체를 다

녀온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충북에서 코로나19 또 다른 방문판매업자(확진자)를 만나고 돌아온 사실 등을 감추고, 광주 금양오피스텔 10층 사무실에서 다단계 판매업자들과 여러 차례 접촉했다.

A씨의 이러한 행위로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오피스텔 발 집단 감염이 속출했고, 당시 질병관리본부에서 파견된 역학 조사관들이 진단 검사를 받고 격리에 들어가야만 했다.

특히 방문판매 발 감염이 사찰·교회·사우나·고시학원을 거쳐 배드민턴 동호회·휴대전화 대리점까지 확대되



면서 광주시는 지난해 7월 1일 지자체 최초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도 했다. A씨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

재판장은 "A씨는 고의로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위치 추적(GPS) 기록과 역학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 특히 촘촘한 방역망 구축에 지장을 초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기자

마스크 착용 안내한 버스기사 때린 30대 취객 입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탑승하려던 것을 제지당하자 기사·승객들에게 행패를 부린 30대 취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17일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로 A(36·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에 무안군 삼함읍 남악리 한 정류장에 정차 중인 군내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한 버스 기사 B(60)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다.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소화액을 승객 7명에게 뿌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던 A씨는 '마스크 착용 뒤 탑승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B씨에게 주먹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버스에 마린된 비상 탈출용 망치로 유리창을 깨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곡성 고갯길서 미끄러진 화물차간 충돌...1명 중상

18일 오후 12시40분께 전남 곡성군 고달면 백곡리 편도 2차선 도로에서 8.5t 규모 사로 운반용 화물차와 1t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1t트럭을 운전한 3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t트럭이 최근 내린 눈이 얼어 붙은 고갯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완도 가건물서 폭발 추정 화재...1명 숨져

전남 완도의 한 가건물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1명이 숨졌다.

18일 완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13분께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3층 조립식 패널 구조 가건물에서 폭발음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현관 입구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내에 100가람으로 추정되는 유류 용기가 있었던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광서수로 빠진 차량운전자1명 숨져... '미끄러짐 추정'

17일 오후8시33분께 전남 영광군 염산면 한 도로에서 A(46)씨가 몰던 승용차가 약 1m 깊이의 수로에 빠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가 숨졌다.

경찰은 A씨 차량이 전날부터 내린 눈에 언 도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선주 속이고 상습적으로 선불임금 가로챈 50대 구속

충북 제천경찰서는 대한 대출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A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께 충북 제천시에서 택시를 타고 강원도 홍천군으로 이동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만나 2500만원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기존 대출을 갚으면 정부지원금의 지급리 대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금융기관 사칭 전화에 속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타고 이동한 택시기사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쫓고 있다.

전남 무안서 감염경로 모르는 일가족 확진...확산 우려

금융기관·편의점·교회 등 접촉자 파악 중

전남 무안에서 인근 신안지역 집단 감염지와 접점이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와 방역당국이 추가 감염을 우려하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무안군 해제면의 한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A씨(797번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최근 인근지역인 신안군 지도읍과 무안군 해제면에서 교회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무증상임에도 자진해 검사를 받았다.

이후 A씨의 아내(801번)와 딸 2명(802번, 803번), 장모(804번)까지 4명이 이날 오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금융기관에 근무하며 지역 전통시장에서 예금을 수급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접촉자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의 자녀 1명은 해당 지역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장모는 마을의 중앙교회 신도인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전남도는 현재 해제면에 거주하는 주민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A씨의 이동 동선 중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안군 지도교회와는 접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경기도 이전에 거주하는 A씨 아들이 최근 고향집을 다녀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도에 검사 안내를 통보했다.

무안=이기성기자

'광주 공공기관 가족 9명 확진' 설 모임 여부 조사...행정처분 고려

직장 동료·초등학생 자녀까지 감염

광주의 한 공공기관 직원의 동료와 가족 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감염경로와 설 연휴 모임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역학 조사를 벌인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5인 이상 모임'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남 노 공공기관 직원(광주1955번)과 가족(1956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데 이어 이날 오전 1955번 확진자의 동료와 또다른 가족 등 7명이 추가 감염됐다.

이 중에는 초등학교 자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광주1955번·1956번 확진자는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

방역당국은 가족 전체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설 연휴에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추가 감염자들은 격리병상에 입원하기 앞서 1955번 자택에 방문을 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이를 토대로 이들이 한꺼번에 만났는지 여부와 따로 방문을 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명확한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 범위를 넓혀 최대 2

주까지 동선을 파악할 계획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진술상 1955번 확진자의 자택에서 만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따로 방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누가 먼저 감염됐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설 연휴 5인 이상 모임이 확인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지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